

NH국민은행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선정

농업인과 도시인 연결하는 상생 디지털 플랫폼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디지털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2018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에서 농협상호금융의 NH국민은행가 수상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2016년 7월 출시된 NH국민은행은 젊은 세대는 물론 디지털금융에서 소외

되기 쉬운 농업인과 고령층도 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단순, 간편하게 개발, 월 송금 1,000만원 이상의 높은 이용실적과 실 이용률이 90%에 육박하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출시 2년 만에 가입고객이 300만명을 돌파, 매일 50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는 농협상호금융의 중심 서비스로 발돋움했다.

7월에는 국민은행 내에 농업인에게 농업 관련 정보를 도시민에게 고품 소식을 전하는 '콕팜2.0' 서비스를 확대 개편, 콕팜2.0을 이용하는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콕팜' 서비스는 사회적 디지털 소통 도구인 SNS서비스가 갖춰져 있어 농업인간, 농협과 농업인,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 농업 디지털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10월 말에는 NH국민은행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직관적인 사용자 화면 도입 및 신규상품 가입채널 확대(카드상품 가입, 환전기능 등),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콕푸드' 구축이 포함되었다.

특히, '콕푸드'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등재, NH국민은행을 이용하는 도시민은 이를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어 도농상생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협상호금융 소성모 대표는 "NH국민은행이 고객여러분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2018 대한민국 히트상품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미래사업의 경쟁력은 디지털 수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고객을 고려해 NH국민은행을 디지털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축산인 냄새없는 축사환경 구현

전북농협,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대중), 전북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이안기),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설동섭)은 12일 축산인 스스로 노력하는 축사환경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임직원 및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청소 및 농장 경관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 구현을 위해 축사 환경개선 운동을 한다"며, "환경개선 운동을 계기로 앞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사냄새 없는 현장을 구현하도록 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축협 중심으로 매월 두번째 수요일, 축사환경 '개선의 날'을 추진하고 양축농가가 일제 축사 청소 및 농장 경관개선 등 환경개선 실천 분위기를 조성, 축사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총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전북지역 주관기관 실무자 회의를 자동차 융합기술원에서 12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이용료 최대 7,000만원을 정부지원금 70% 범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북지역에는 13개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북지역 기관에는 (사)캡텍종합기술원,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재)전북테크노파크,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예코융합첨삭유연연구원,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주대학교산학협력

단, 한국조명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사단법인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등으로 확인 됐다.

전북지역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구축, 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기술지원하기 위해 13개 주관기관이 참여하여 '전북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주관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1회 방문으로 네트워크 연계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자금, 인력부족 등으로 R&D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중점대상으로 동 사업을 홍보하고 R&D 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지역 연구기관들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소기업 R&D 역량 및 기술경쟁력이 좀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12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캄보디아 근로자 가족을 초청하여 '2018 웰컴 투 코리아' 축하 행사를 열었다.

전북은행, 캄보디아 근로자 가족초청 '웰컴 투 코리아' 성료

한국문화 투어 · 근로자 사업장 · 숙소 방문 등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2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캄보디아 근로자 가족을 초청하여 '2018 웰컴 투 코리아' 축하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사벤소카 노부관, 캄보디아 법인 SBG DXI 측 메이트린 대표,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캄보디아 근로자 4가정, 캄보디아 우수학생 등 50여명이 참석 했다.

전북은행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그리웠

던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힘든 타국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축하행사는 전북은행 사회공헌사업 영상시청, 초청가족 선물전달, 가족초청 소감발표, 캄보디아 우수대학생 결혼이주여성 장학금 전달 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캄보디아 근로자 4가정, 캄보디아 우수학생 등 50여명이 참석 했다.

전북은행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그리웠

던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힘든 타국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축하행사는 전북은행 사회공헌사업 영상시청, 초청가족 선물전달, 가족초청 소감발표, 캄보디아 우수대학생 결혼이주여성 장학금 전달 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캄보디아 근로자 4가정, 캄보디아 우수학생 등 50여명이 참석 했다.

전북은행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그리웠

전북우정청, 직원 총동원 추석 배송 작전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김성철 청장 등 우정청 전직원이 총동원되어 지난 10일과 11일에 이어 추석 선물택배가 최대 폭주하는 17일과 18일까지 나흘간 전주우편집중국에서 밤늦게까지 추석 배송작전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이 전북지역에서 처리되는 선물택배는 타도시로 나가는 65만여건과 전북지역에서 배달되는 55만여건으로 총 120만여건에 달해 전년 대비 11%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

은 "추석 선물택배를 아무런 사고 없이 총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배송하고 전북지역의 농산물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우체국소프링과 전북달팽이장터를 통해 매출증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